

변리하는 저지저지

인터넷...그 빛과 그림자

디지털과 네트워킹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정보사회의 기반에는 바로 인터넷이 존재하고 있다. 누구도 인터넷을 도외시하고는 현재의 급변하는 사회, 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 단순한 오락과 여흥에서부터 최신의 뉴스와 학습, 의료 등 중요정보의 습득, 거대한 비즈니스의 창출 등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바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우리들의 의존도는 점점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사용인구 3억6천만명

인터넷의 등장이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중의 하나는 인터넷에 의해 국경과 공간의 장애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일단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 무한한 정보의 공간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야말로 인터넷에 의해 '지도는 찢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은 그 활용영역이 무제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가능하게 만들 때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이 거미줄같이 지구



羅 奉 河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곳곳에 펼쳐져 있고 그 복잡하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초기 태동은 좀 더 소박한 모습이었다. 인터넷의 시초는 1969년 미국 국방성의 한 프로젝트에 기원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 나타난 알파넷(ARPANET)은 당초 군사목적의 연구망이었다. 그것이 TCP/IP라는 인터넷의 공통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세계 인터넷의 중추로 성장한 것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착실한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PC가 급속히 보급되어 인터넷 대중화의 기반이 점차 형성되었으며, 도메인 이름 체계 등 인터넷 구조가 정비됨에 따라 인터넷은 드디어 대중화되었고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논의되던 상용화

가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현재 세계 인터넷 사용인구는 3억 6천만명, 그중에서도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천 6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5년까지 1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은 그 기본적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익명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정보제공과 자유분방한 의사전달 및 자기표현, 정보민주화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광범위한 정보분배, 컴퓨터와 정보매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및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민주적 정보사회.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은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삶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원격교육, 원격쇼핑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채로워지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계층간, 기업간 정보공

인터넷은 이제 그 활용영역이 무제한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 매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 세계에서 3억6천만명이며 우리나라에도 1천6백만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음란·폭력물 등 저질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인류문명사에 화려하게 등장한
인터넷의 빛과 그림자를 점검해본다.

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조직 문화의 창출, .COM기업으로 상징되는 신산업의 출현과 고용창출 등 이른바 지식기반경제로 전이하게 되었다. 그 뿐인가.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인터넷이 뚜렷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터넷은 인류문명사에 하나의 밝은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어두움 또한 밝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무시되었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다면서 용인되어 오던 인터넷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음란·폭력물 등 계속 확산

인터넷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음란, 폭력물 등 저질의 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무런 여과없이 청소년 등 특정 계층에 무제한적으로 접속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인터넷은 공식적인 음란물의 해방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의 침해에 의한 피해 및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스토킹 등 인터넷의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네트워크 해감에 따라 사회체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상에 흘러 다니는 정보의 약 10%가 불법이거나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한다. 유사한 국내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중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유해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그 접촉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들의 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계층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터넷을 고안한 당시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그들만의 연구망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고, 전체 사회에 미칠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아동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은 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이 또 다른 현실은 기존의 현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확장 증폭되어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침해를 끼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인터넷은 기존 현실보다 더 파괴적이고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법적 안전성 보장 절실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손상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일부 이용자에 의해 인터넷이 부정부적, 무법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인터넷이 갖고 있는 공동선을 위한 순기능적 요인은 말살되어 버리고 인터넷이 오로지 부정적인 목적에만 이용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인 것이다.

인터넷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법 적용이 상응해야 한다'라는 대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즉 온라인도 하나의 현실인 이상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컨대 명예훼손이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면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사태가 벌어진 것과 상응한 법적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당연히 보이는 원칙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은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 보면 온라인 즉 인터넷에도 현실 법 원칙에 상응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 인터넷은 '법적 진공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더욱 촉진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해 보더라도 당연히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민간의 자율규제를 주장해 온 미국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음란, 폭력물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

인터넷도 실정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의 정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까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성과 함께 인터넷의 자율적인 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게시판에서 바른 말 쓰기, 욕설 안 하기,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등등의 운동이 뜻있는 네티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현황과 장래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운동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인터넷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작지 않다.

인터넷 정화에 관한 논의의 배경에는 인터넷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율적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결국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네티즌들의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공권력의 개입 내지는 국가검열은 이제껏 자유로운 발전을 구가해 온 인터넷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공권력의 개입 없이 인터넷의 역기능이 적절히 해소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익명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상 자율규제란 그렇게 간단치 만은 않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터넷의 음란, 폭력물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터

넷 내용등급표시제이다.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는 인터넷상에 만연하는 음란물, 폭력물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내용검열을 초래함이 없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제시되어 왔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평가해 표시하면 정보 수요자 측에서는 자신에게 합당한 수준의 정보를 선별해 접속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내용등급표시제가 실시되면 학부모나 교사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들이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합당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통제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등급표시제 시행국가 늘어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직 모든 정보에 등급이 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방식도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달리고 있지만 점차 세계적으로 기술방식이 표준화되어가고 있으며 등급표시제를 수용하는 나라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 역시 민간의 자율규제의 기반 위에서 청소년 계층에 적절한 접속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에 입각하고 있다. ①